

외인 투자자 돌아왔다... 반도체·2차전지 등 올 6조 순매수

한국거래소, 하루 거래액 8120억
환율하락·리오프닝 등 환경 좋아
삼성전자·하이닉스 상위 순매수
LG화학·포스코홀딩스 등도 '관심'



/유투이미지

지난해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새해 들어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하락,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기대감 등으로 인해 외국인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등록제 폐지 등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지수 편입을 노리고 있는 것도 외국인 투자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올 들어 6조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수했다. 이날에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120억원을 사들였다.

2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2조 1603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가 637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2차전지 관련

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였다. LG화학(1827억원), 포스코홀딩스(1809억원), 삼성SDI(1112억원) 등을 사들였다.

김정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작년 4분기 평균적으로 1450원대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들어 가파르게 1200원

대로 내려오면서 외국인 수급에 있어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으며 반도체 업황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2차전지 수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최근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중국 증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것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쳤다.

김정운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으로 운용을 많이 하므로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한다고 하면 비중 조절을 해야 한다"며 "MSCI 기준으로 봤을 때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중국이랑 한국에서 동시에 매수하는 게 비중 조절 측면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외국인 매수세에 코스피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2400선을 회복하는 등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채현기 흥국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원·달러 환율 하락, 정부의 WGBI 편입 추진, 외국인등록제 폐지 등의 호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 투자 증가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증시 거래 비중이 고점인 상황으로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조창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분기 어닝시즌이 진행 중이고, 주요 대형주들의 잠정실적을 발표로 어닝쇼크 우려는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거래 비중 또한 이미 고점 수준까지 높아져 있고 펀드네팔(기초 체력)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도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코인거래액, 코스닥 넘었다... '불장' 또 오나

5대 거래소 24시간 거래액 49억弗
비트코인 한달만에 37% 가량 올라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상자산) 대부분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대금도 크게 치솟았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면서 또 다시 강세장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가상화폐 시장 중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 빙셀,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날 오후 1시 기준 최근 24시간 동안 거래대금은 총 49억2138만달러(약 6조 616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5개 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8억1352만달러에 불과했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6배 이상 크게 급증했다.

가상화폐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을 앞지르는 모습도 나타났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5조7072억원(1월 2~25일)이다. 특히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만 하더라도 지난 24일과 15일 장중 일일 거래대금이 50억달러선을 넘어서면서 혼자서도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압도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약세장

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 가상화폐가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의 반등을 시작으로 일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에서 일주일간 1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해 말 2108만원에 머물렀지만 이날까지 37%가량 오르면서 2800만원대 후반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알트코인 중에서는 쓰레스홀드(T), 애플토스(APT)의 경우 최근 1주일 동안 가격이 각각 174%, 140% 상승했다. 두 가상화폐는 이날 중에도 상장 가상화폐 중 거래대금 상위 순위에서 애플토스 1위(1조 3765억원), 쓰레스홀드 2위(5341억원)

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거래소인 빙셀에서도 다수의 알트코인의 시세가 단기간에 급변동하면서 '거래 유의' 안내를 연이어 공지했다. 지난주 증권시장이 문을 닫은 뒤 빙셀 측은 설 연휴 동안에만 베라시티(VRA), 엘리시아(EL), 템코(TEMCO), 셀러네트워크(CELR) 등 총 6개 종목에 대해 거래 유의를 안내했다.

한편, 각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불장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두고 접근성이 높은 인터넷은행과의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코인원의 경우 지난해 말 NH농협은행과의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종료하고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손을 잡았다.

/이영석 기자 ysl@

지난해 자금시장 경색에 M&A 줄었다

예탁결제원, 총 137곳으로 2.8% ↓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상장사 인수합병(M&A)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137개

사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전년 53개사에서 44개사로 감소했고, 코스닥시장은 전년 88개사에서 93개사로 증가했다.

사유별로는 합병 123개사(유가증권 36, 코스닥 87), 주식교환·이전 6개사(유가증권 6), 영업양수·양도 8개사(유가증권 2, 코스닥 6) 순이었다.

지난해 상장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2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8.1%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33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21.5% 줄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130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80.2% 감소했다. 작년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한 기업인수합병(M&A)사유는 합병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동원산업이 443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원익피앤이가 375억원을 지급했다.

/원관희 기자

부문제도 폐지... 11본부서 7본부로 축소

금투협, 조직개편·임원인사 단행
증권회사 지원조직 1본부 3부 2팀 확대

금융투자협회가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유사기능 조직을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산업서비스 조직을 강화해 회원사 대변역량을 제고한다. 기존 11본부·부문이 7본부로 축소된다.

중복적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하고 통일성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부문제도(총괄부문, 대표제)를 폐지하고, 조직 슬림화에 따라 본부장을 축소했다. 통합운영시 시너지가 가능한 산업전략본부와 시장관리본부, 전략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는 통합한다.

증권(선물)회사 지원 조직을 기존 1개 부문 3개 부서에서 1본부, 3부, 2팀으로 확대한다. 중소형 증권사의 성장 지원 및 현안 대응을 전담할 중소형사 지원팀, 가상자산,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등 디지털이슈에 대응할 디지털금

융팀을 증권·선물본부내 신설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지원조직을 기존 1개 부문 2개 부서 1개팀에서 1개 본부 2개 부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회원사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사모펀드팀, 대체투자시장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 실물펀드팀을 자산·부동산본부내 신설한다.

기존 부동산신탁지원부는 종합부동산금융부로 개편한다.

또 실무적 소통강화 및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부서를 축소하고 팀 추가 신설을 통해 '부팀제'를 일부 도입한다. 부팀제 도입에 따라 세제지원부, 법무지원부, 정보시스템부, K-OTC부, 채권부 등을 팀단위로 조정한다.

회원사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산업총괄부를 산업협력부로 개편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 조정 기능을 총괄할 미래전략·산업조정팀과 신탁제도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ISA) 등 자산관리 업무를 지원할 WM팀을 신설했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DL이앤씨,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 1단계 준공

전북부안~군산 총연장 27.1km 규모
DL이앤씨는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공사사업'의 1단계 구간(제3공구)을 준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 남북도로 사업은 전북 부안군에서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총연장 27.1km를 6~8차로 규모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새만금 내부간선 기능을 확보하고 주변 용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DL이앤씨는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중 제3공구 사업을 수주해 2017년 12월 착공, 이달 준공했다.

도로 기능성 향상을 위한 설계를 바탕으로 가변속도제어기와 자동돌발감지시스템, 염수분사시스템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첨단 교통안전시설물을 곳곳에 설치해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도로를 선보였다.

특히 DL이앤씨는 새만금 만경대교(1968m) 구간에 세계 최초의 '비대칭 리버스 아치교(총길이 723m)'를 세워 새만금의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리버스 아치교는 그 이름처럼 활을 뒤집어 놓은 초승달 모양으로 아름다운 새만금의 물길을 품고 있는 듯 한 차별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김대환 기자 kdh@